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25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애월고등학교 창송 4H·학생회플리마켓 수익금 전달-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창송4H·학생회 수익금 기탁-9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애월고 창송4H회 수익금 기탁-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22% 급증-6면	-	제주매일
○ 제주산 조생양파 4만t 생산...kg당 1531원 '농가 환영' -6면	-	제주매일
○ 농작물 재해보험 안전망 역할해야-3면	-	제민일보
○ 일손 바쁜 옥수수 농가-4면	-	뉴제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25일)

○ 애월고등학교 창송 4H·학생회플리마켓 수익금 전달-8면

### 애월고등학교 창송 4H·학생회 플리마켓 수익금 전달

애월고등학교 창송 4H(회장 김희정) 및 학생회(총무 강희원)는 지난 22일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 달라며 플리마켓 수익금 26만원을 전달했다.



4.25.  
뉴제주일보 8

(제민일보: 2024년 4월 25일)

○ 창송4H·학생회 수익금 기탁-9면



### 창송4H·학생회 수익금 기탁

애월고등학교 창송 4H(회장 김희정)와 학생회는 22일 읍사무소(읍장 김기완)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 돕기 26만원을 전달했다.

창송 4H 및 학생회 일동은 “이번 나눔을 기회 삼아 앞으로도 이웃돕기의 정성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4.25.  
제민일보 9

(제주일보: 2024년 4월 25일)

○ 애월고 창송4H회 수익금 기탁-8면



## 애월고 창송4H회, 수익금 기탁

애월고등학교 창송4H회(회장 김희정) 학생들은 지난 22일 플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 26만원을 소외계층에 써 달라며 제주시 애월읍(읍장 김기완)에 기탁했다. 4.25.

제주일보 8

(제주매일: 2024년 4월 25일)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22% 급증-6면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22% 급증

제주시, 수요 조사 결과 199농가에서 671명 희망  
법무부 심사 후 인원 확정되면 8월부터 순차 배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의 현실상이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99 농가에서 671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25. 전반기 516명의 외국인 계절 제주매일 6.3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671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한 것이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자 입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외에도 농촌인력증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연계해 농업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도록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 등 인력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을 배정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112명이 입국해 43개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25일)

○ 제주산 조생양파 4만t 생산...kg당 1531원 '농가 환영' -6면

# 제주산 조생양파 4만t 생산...kg당 1531원 '농가 환영'

제주농협조공법인 올해산 60% 판매 목표  
이마트온라인도매시장 판매경로 다양화

제주산 조생양파가 막바지 수확에 접어든 가운데 생산량이 4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이 좋아 농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제주농협조공법인은 22일 판촉행사를 통해 식자재왕마트(수도권매장)에서 30t의 조생양파를 판매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위탁판매자인 대아청과가 식자재왕마트에 조생양파를 공급한 것이다. 앞서 함양농협조공법인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이마트에서 50t을 판매하기도 했다.

4.25. 제주농협조공법인의 판매 목표는 제주매일 6.3 전체 생산량의 60%가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김옥자씨 밭에서 인부들이 조생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량인 2만5000t으로 지난 17일 기준 이미 1만3700t을 판매했다.

제주산 조생양파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15kg 1망당 2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농가 수취가의 경우 24일 기준 1kg당 1531원으로 전년 동기 1241

원 대비 높다. 무엇보다 이 시기 최근 5개년 평균인 969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밭 1000평 기준 전체 판매액은 3000만원, 순수익은 60% 수준인 1300~1500만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박경철 기자

(제민일보: 2024년 4월 25일)

○ 농작물 재해보험 안전망 역할해야-3면

## 농작물 재해보험 안전망 역할해야

### 의정칼럼

제주감귤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임금에게 진상되는 특산물로 유명했다. 현재는 다양한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맛과 품질이 더욱 향상되었다.

하지만 최근 감귤산업은 1세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농자재 대금,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 등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난해 노지감귤의 경우 1997년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도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2023년 산 제주감귤은 사상 최대 조수입이 예상되며, 감귤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해 감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과, 배, 딸기 등 경쟁 과채류의 작황 부진, 생육기 기상적인 영향, 감귤의 적정생산량 등의 대외적 여건과 농가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제주 감귤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감귤 산업 종사자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

4.25.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제민일보 3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

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귤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신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들며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고, 농가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행정, 농업기술원, 농협보험 등이 협력하여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주감귤의 특성을 반영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침 현실화를 통해 농가들의 노력이 소득으로 돌아오고,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25일)

○ 일손 바쁜 옥수수 농가-4면



4.25.  
뉴제주일보 4

일손 바쁜 옥수수 농가 24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한 옥수수밭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뿌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